

월간

SW 산업 동향

2013년 9월호



Contents

I. Summary	1
II. 월간 SW 주요 통계	4
1. IT 시장 동향	5
2. SW산업 생산액 및 수출액	10
III. SW 시장 및 기업 동향	12
1. 패키지 SW 동향	13
2. IT서비스 동향	21
3. 신(新)사업 동향	24
4. SW 기업 동향	33
IV. 국내외 정책 동향	40
1. 국내 정책	41
2. 해외 정책	48
V. 월간 SW 이슈 분석	50
스마트 홈 플랫폼 시장 동향	51



I . Summary

■ 월간 SW 주요 통계 ■

- 국내 웹툰 시장 2017년까지 연평균 40% 이상 성장
- 2017년까지 모바일 앱 다운로드 건수 연평균 33.2%씩 증가
- 2013년 스마트폰 출하량 10억대 돌파, 2017년 17억대 예상
- 2017년까지 전세계 퍼블릭 IT클라우드 서비스 지출액 연평균 22.6%씩 증가
- 8월 SW 생산액 2조 6,286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7.7% 증가, SW 수출액 2억 9,465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48.1% 증가

■ SW 시장 및 기술 동향 ■

【 패키지 SW 】

시스템 SW

데스크탑 OS 시장, MS의 윈도우8 점유율 상승 / 정보보안 인력 수요 급증,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정보보안 전문인력 양성 프로젝트 활기

응용 SW

고객관계관리 후속으로 고객경험관리 시장 성장 / 기업 핵심 정보 접근 업무 (예, ERP)에 대해서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제외

임베디드 SW

자동차 전장화 비율 증가, AUTOSAR · ISO266262 관련 차량용 SW 개발 열기 고조

공개 SW

리눅스 개발 중심이 서버에서 모바일로 이동

【 IT서비스 】

빅3 IT서비스 기업, 해외 진출 정체성 확립 및 해외 매출 확대에 주력 / 국내 IT 컨설팅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투자, 신산업 및 글로벌 사례 발굴이 필요

【 신사업 】

클라우드

고객 비즈니스 혁신 지원 여부가 클라우드 서비스 벤더를 평가하는 핵심 요소 / 오라클, 애플리케이션 · 소셜 · 플랫폼 · 인프라 스트럭처에 대한 클라우드 서비스 공세 강화

모바일

금융권, 모바일 카드 서비스 강화를 통한 금융거래 시장 공세 강화 / 2020년까지 스마트워치 시장 연평균 70% 이상씩 성장

소셜

소셜미디어를 악용하는 소셜 스팸 증가, 페이스북에서만 연간 2억 달러 피해 발생 / 주요 은행 SMS를 고객 상담 및 민원창구로 활용

빅데이터

게임업종, 빅데이터 분석 도입 및 활용 증가 / 저조한 ROI · 분석 기술 부족 · 솔루션 부재가 빅데이터 투자를 가로막는 애로사항

▣ 국내외 정책 동향 ▣

【 국내 】

미래창조과학부

2013년 국가 DB사업 본격 추진 / 2014년 예산 13조 5,746억원 편성

안전행정부

공공정보 개방·공유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지침 발간 / 업무관리 시스템 주요 기능 모바일로 구현

국토해양부

5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수립

산업통상자원부

ICT 기반 에너지 수요관리와 가스에너지 안전분야 기술개발 추진

문화체육관광부

미래부 공동, 콘텐츠 해외진출 확대 방안 발표

【 해외 】

中: 충칭시, 2013년 전략적 신산업 100가지 중점 프로젝트 발표

덴마크: 스마트그리드 대규모 투자 계획

美: 표준기술연구소, 개인정보보호강화를 위한 사이버본인인증시스템 개발 프로젝트 추진 / FDA, 모바일 의료 애플리케이션 관련 애플리케이션 정의, 평가 기준 등의 가이드라인 발표

▣ 월간 SW 이슈 분석 ▣

【 스타트업 활성화에 따른 의미와 시사점 도출 】

- 기기 스마트화 진전, 유무선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으로 스마트홈 시장 급성장
- 가구 내 스마트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되는 기기 수의 급격한 증가가 스마트홈 시장의 성장 요인
- 스마트홈 시장은 유선 기반의 스마트홈1.0에서 모바일·보안·융합형 모델의 홈네트워크 2.0으로 진화
- 홈네트워크, 가전업체, 플랫폼업체, 통신서비스 업체, 보안업체, 케이블 업체·플랫폼 업체가 치열하게 경쟁
- 스마트홈 관련 미들웨어 및 SW 플랫폼 기술은 지속적으로 발전
- 스마트홈 관련 SW 플랫폼 기술은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가 주도



II. 월간 SW 주요 통계

1. IT 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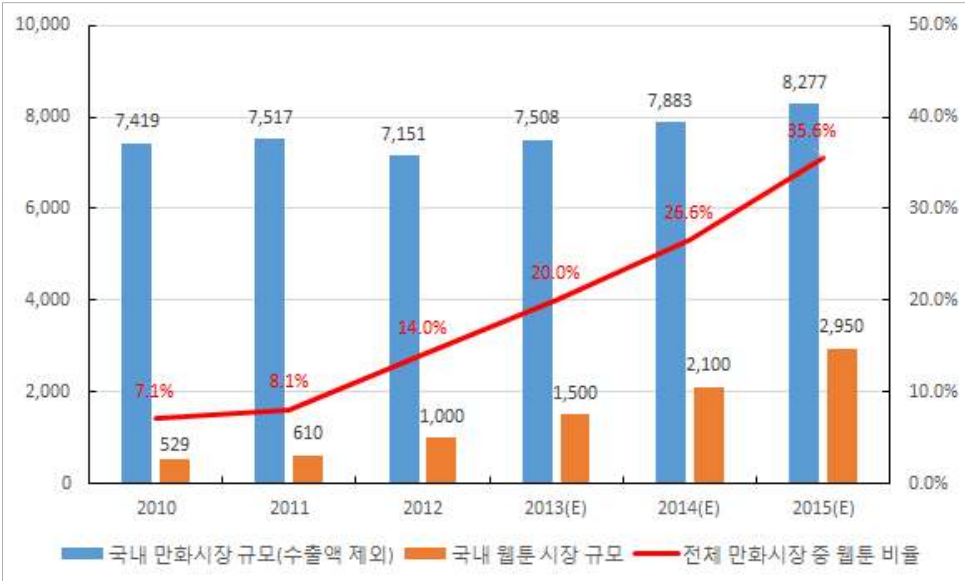
가. 국내 웹툰 시장 전망

국내 웹툰 시장 2017년까지 연평균 40% 이상 성장, 광고 매출·2차 저작권료·유료 웹툰 판매 등이 웹툰 시장 성장을 견인

- 2012년 국내 만화 시장 규모 7,150억원, 웹툰 시장은 약 1,000억원 (KT경제경영연구소, 2013. 9. 11)
 - 전체 만화 시장 중 웹툰 시장 규모는 2012년 14%에서 2015년 35.6%까지 증가, 2015년 국내 웹툰 시장 2,950억원 전망
 - 웹툰을 통한 광고 매출액 증가, 2차 저작권료 수입, 유료 웹툰 판매 등이 웹툰 시장 성장을 견인
 - 영화, 드라마, 게임 등 다양한 미디어의 원천 콘텐츠로 활용, 브랜드 홍보 및 캠페인용 웹툰 활용, 웹툰 캐릭터 등 웹툰 관련 시장 활성화

- 무료로 제공되는 포탈형 웹툰이 주류, 유료형 웹툰 서비스 등장
 - 초기에는 작가 개인 홈페이지, 블로그 등 불특정 다수에게 무료 공개, 최근에는 포탈 등이 전문 웹서비스를 런칭·서비스
 - 레진코믹스의 경우 시간차 유료서비스를 제공, 프리미엄 웹툰 유료화에 대한 가능성을 보임
 - 웹툰 시장은 네이버와 다음이 양분, 통신사·메신저 사업자의 시장 진입 시작
 - KT(올레마켓웹툰), SKT(T스토어 웹툰), 카카오톡(오늘의 웹툰) 등 통신사 및 메신저 사업자의 시장 진입 가속화

그림 국내 만화 및 웹툰 시장 규모 추이(단위: 억원)



자료: KT경제경영연구소(2013. 9. 11), [보고서 링크](#)(로그인 필요)

표 국내 웹툰 서비스 현황 및 비교

사업자	KT	네이버	다음	SKT	카카오톡
서비스명	올레마켓 웹툰	네이버 웹툰	만화속 세상	T스토어 웹툰	오늘의 웹툰
개시일	2013년 7월	2005년	2003년	2013년 4월	2012년 3월
연재작품수 (' 13년 7월 기준)	30편	130편 (연재완료 작품 포함 405편)	70편 (연재완료 작품 포함 434편)	64편	41편
웹툰앱 유무	X	O(' 10년) 네이버 웹툰 앱	O(' 13년 6월) Daum 만화	X	X
대표 웹툰	수상한 아이들 (윤태호) 셋이서 썩 (주호민) 냄새를 보는 소녀	마음의 소리 (조석) 신의 탑 SIU 치즈인더트랩 (순끼)	미생(윤태호) 마녀(강풀)	인천상륙작전 (윤태호) 2차원 개그 (마인드C)	골방환상곡2 (워니) 달마과장 (박성훈)

자료: KT경제경영연구소(2013. 9. 11), [보고서 링크](#)(로그인 필요)

나. 모바일 앱 다운로드 동향

2017년까지 모바일 앱 다운로드 건수 연평균 33.2%씩 증가, 신규 모바일 기기 구매에 따른 선호 앱 수요가 다운로드 증가의 주요 요인

- 2013년 모바일 앱 스토어 다운로드 건수는 약 1,020억 건, 2017년 약 2,687억 건 다운로드 예상(Gartner, 2013. 9)
 - 2012년 약 640억 건 대비 59.5% 증가, 연평균 33.2%씩 증가 전망
 - 신규 모바일 기기 구매에 따른 선호 앱 수요가 모바일 앱 다운로드 건수 증가의 주요 요인
 - 2015년 이후로는 다운로드 건수 증가율이 크게 낮아질 전망
 - 신규 앱 다운로드보다는 지속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앱을 중심으로 앱 포트폴리오가 구축되면서 기기당 평균 다운로드 건수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

그림 전세계 모바일 앱 스토어 다운로드 예측(2012-2017, 단위: 백만 건)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Free Downloads	57,331	92,876	127,704	167,054	211,313	253,914
Paid-for Downloads	6,654	9,186	11,105	12,574	13,488	14,778
Total Downloads	63,985	102,062	138,809	179,628	224,801	268,692
Free Downloads 비중	89.6%	91.0%	92.0%	93.0%	94.0%	94.5%

자료: Gartner (2013. 09) < <http://www.gartner.com/newsroom/id/2592315> >

- 무료 다운로드 비중은 전체 다운로드 건수의 90%에 육박
 - 2013년 모바일 앱 다운로드 매출 중 11%는 IAP(in-app purchase)에서 발생, 2017년에는 48%까지 증가
 - IAP는 2013년과 2014년 급격히 증가하지만 이후에는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
 - 초기에는 얼리 어댑터의 구매 영향력으로 인해 IAP에 의한 매출이 크게 증가하지만, 대중화 시기를 거치면서 구매력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

다. 스마트폰 운영체제 점유율 전망

2013년 스마트폰 출하량 10억대 돌파, 2017년에는 17억대 예상, 2017년 Windows OS의 점유율이 크게 증가할 전망

- 2013년 스마트폰 출하량은 2012년 대비 40.0% 증가한 10억 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IDC, 2013. 9. 4)
 - 이동사의 보조금 지급, 200달러 이하의 저가 스마트폰 보급 증가가 주요 요인
 - 연평균 14% 이상씩 증가하면서 2017년에는 총 17억대 이상이 출하되고, 휴대전화 판매의 대부분이 스마트폰으로 대체될 전망
 - 보조금, 가격 하락, 소비자 관심 증대, 다양한 제품 출시 등이 지속적인 출하량 증가의 원인

- 2013년 스마트폰 OS 점유율은 안드로이드 75.3%, iOS 16.9%, Windows Phone 3.9%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
 - 2017년에는 Windows Phone의 점유율이 10.2%로 다른 OS에 비해 점유율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 Nokia 인수 및 OEM 제조사들의 지원으로 고성장 신흥 시장에서 저가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공략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

그림 스마트폰 운영체제 점유율 예측

스마트폰 OS	2013년 시장점유율	2017년 시장점유율(E)
Android	75.3%	68.3%
iOS	16.9%	17.9%
Windows Phone	3.9%	10.2%
BlackBerry OS	2.7%	1.7%
Others	1.2%	1.9%
Totals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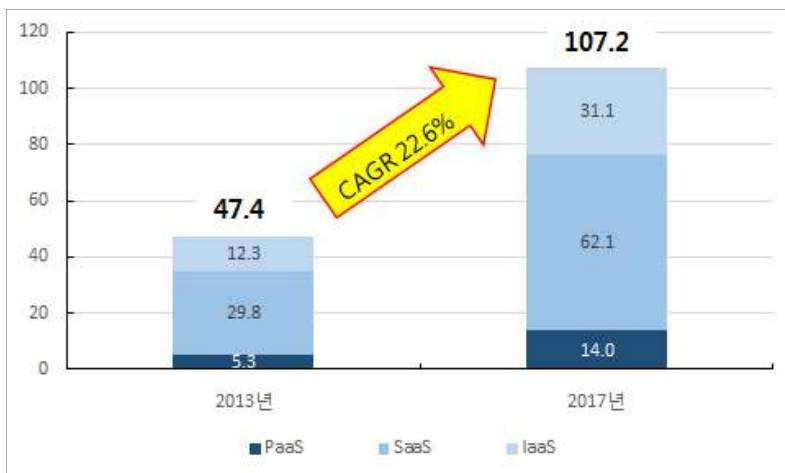
자료: IDC(2013. 9) < <http://www.idc.com/getdoc.jsp?containerId=prUS24302813> >

라. 전세계 퍼블릭 IT 클라우드 서비스 지출 전망

2017년까지 전세계 퍼블릭 IT클라우드 서비스 지출액 연평균 22.6%씩 증가, 모든 산업에서의 성장과 혁신을 이끄는 중추적 역할 수행

- 2013년 전세계 퍼블릭 IT 클라우드 지출액은 474억 달러, 2017년까지 연평균 22.6%씩 성장하여 1,072억 달러에 이를 전망(IDC, 2013. 9. 3)
 - 도입 규모 확대와 더불어 고객과 솔루션 확장을 도모하는 2 단계로 진입
 - 클라우드와 모바일·소셜·빅데이터 등 다른 기술들과의 상호 의존성이 높아지고, 모든 산업에서 성장과 혁신을 이끄는 중추적 역할 수행
- 2017년 퍼블릭 IT 클라우드 서비스는 IT 제품 지출의 17%, 5개 기술 카테고리¹⁾ 성장의 50%를 견인
 - 2017년 SaaS 지출액이 57.9%인 621억 달러로 가장 큰 영역을 차지, IaaS는 29.0%인 311억 달러, PaaS는 13.1%인 140억 달러 예상
 - 지역별로는 미국이 43.9%(2013년 56.9%), 신흥시장에서는 연평균 37.3%씩 지출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선진국 시장의 2배)

그림 전세계 퍼블릭 IT 클라우드 지출액 전망(단위: 십억 달러)



자료: IDC(2013. 9. 3) < <http://www.idc.com/getdoc.jsp?containerId=prUS24298013> >

1) 애플리케이션, 시스템 인프라스트럭처 소프트웨어, PaaS, 서버, 스토리지

2. SW산업 생산액 및 수출액

가. SW 생산액 분석

- 2013년 8월 SW 생산액은 2조 6,286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7.7% 증가
 - 패키지 SW 생산액은 3,785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6% 증가
 - 보안SW·산업 범용SW·미들웨어 SW의 생산액이 증가가 패키지 SW의 생산액 증가를 주도
 - IT서비스 생산액은 2조 2,501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6.7% 증가
 - 공공부문의 정보화 사업 발주가 정상화에 따른 시스템 통합 및 IT시스템 관리 및 지원 서비스 생산액이 증가가 주 요인

표		월별 SW 생산액 추이(단위: 억 원) * 생산액 수치는 잠정치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누적 (1~8월)
패키지 SW	'13년	3,619	3,620	4,270	3,595	3,874	4,501	3,631	3,785	30,895
	'12년	3,210	3,491	4,123	3,366	3,551	4,010	3,482	3,332	28,565
	전년동기 대비	12.7%	3.7%	3.6%	6.8%	9.1%	12.2%	4.3%	13.6%	8.2%
IT 서비스	'13년	20,032	21,478	23,267	22,157	22,019	25,757	22,098	22,501	179,309
	'12년	18,753	19,233	20,774	20,117	21,110	24,239	22,110	21,082	167,418
	전년동기 대비	6.8%	11.7%	12.0%	10.1%	4.3%	6.3%	-0.1%	6.7%	7.1%
합계	'13년	23,651	25,098	27,537	25,752	25,893	30,258	25,729	26,286	210,204
	'12년	21,963	22,724	24,896	23,483	24,661	28,249	25,592	24,414	195,982
	전년동기 대비	7.7%	10.4%	10.6%	9.7%	5.0%	7.1%	0.5%	7.7%	7.3%

자료: KEA(2013. 10)

- 2013년 8월 SW 수출액은 2억 9,465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48.1% 증가
 - 패키지 SW 수출은 1억 5,454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9% 증가
 - 일본·동남아시아를 비롯, 중동, 중국, 유럽으로의 수출 지역 확대, 건설 SW·의료SW·미들웨어·모바일 오피스 등 품목 다양화가 패키지SW 수출 증가의 주요 요인
 - IT서비스 수출은 억 ,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 증가
 - IT서비스 기업들의 자체 솔루션 수출 및 계열사를 통한 수출액 증가가 IT서비스 수출액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

표		월별 SW 수출액 추이(단위: 천 달러) * 수출액 수치는 잠정치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누적 (1~7월)
패키지 SW	'13년	89,877	103,033	140,419	132,794	163,832	161,850	163,766	154,540	1,110,111
	'12년	20,220	21,817	25,824	26,505	45,568	66,174	75,704	84,032	365,844
	전년 동기 대비	344.5%	372.3%	443.8%	401.0%	259.5%	144.6%	116.3%	83.9%	203.4%
IT 서비스	'13년	121,755	114,243	128,132	171,706	146,842	176,228	157,054	140,111	1,156,071
	'12년	77,183	79,643	96,418	121,334	151,916	118,413	98,039	114,965	857,911
	전년 동기 대비	57.7%	43.4%	32.9%	41.5%	-3.3%	48.8%	60.2%	21.9%	34.8%
합계	'13년	211,632	217,276	268,551	304,500	310,674	338,078	317,658	294,651	2,263,020
	'12년	97,403	101,460	122,242	147,839	197,484	184,587	173,743	198,997	1,223,755
	전년 동기 대비	117.3%	114.1%	119.7%	106.0%	57.3%	83.2%	82.8%	48.1%	84.9%

자료: KEA(2013. 10)



Ⅲ. SW 시장 및 기업 동향

1. 패키지 SW 동향

가. 시스템 SW 시장 동향

데스크탑 OS 시장, Windows XP 지원 중단, 윈도우폰 성장 등의 영향으로 Microsoft의 Windows 8 점유율 상승

- 전세계 데스크탑 운영체제 시장, Windows 7이 46.4%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Windows 8 점유율 약진
 - Windows 8은 2013년 1월 2.26%의 점유율에서 9월 8.02%로 5.76%p 증가
 - Windows XP 점유율은 2013년 1월 31.59%에서 9월 31.42%로 8.09%p 감소
 - Windows XP 지원 중단(2014년 4월 예정), 윈도우 폰의 빠른 성장²⁾, 데스크탑, 노트북, 넷북, 태블릿PC 멀티 지원 등의 장점으로 Windows 8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

표 데스크탑 OS 점유율 변화

운영체제	2013년 1월 점유율	2013년 9월 점유율	점유율 증감
Windows7	44.48%	46.39%	1.91%p
Windows XP	39.51%	31.42%	-8.09%p
Windows Vista	5.24%	3.98%	-1.26%p
Windows 8	2.26%	8.02%	5.76%p
Mac OS X 10.8	2.44%	3.69%	1.25%p
Mac OS 10.7	2.0%	1.66%	-0.34%p
Mac OS 10.6	1.96%	1.68%	-0.28%p
Others	2.1%	3.16%	1.06%p

자료: Net Application

2) IDC에 따르면 윈도우폰은 2013년 2분기 77.6%의 성장을 보였으며, 이탈리아, 멕시코 등의 국가를 중심으로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정보보안 인력 수요 급증,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정보보안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 전개

- 사이버 보안 위협의 정교화기술 고도화로 정보보안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보안 전문인력 수요 증가
 - 국내의 경우 매년 2,000~3,000명 가량의 정보보안 전문인력 수요 부족 사태 발생(KISA)
 - 대학에서 연간 800여명의 정보보호 인력이 배출되고 있으나, 화이트해커 수준의 인력은 부족(박재문 미래창조과학부 국장)³⁾
 - 금융권 및 대기업을 중심으로 정보보안 전문인력 수요 증가
 - (금융권) 총 자산 2조원, 종업원수 300명 이상인 금융회사는 CISO⁴⁾ 중심으로 보안 전담반⁵⁾ 의무화(금융위원회, 금융전산 보안강화 종합 대책의 후속조치)
 - (삼성그룹) 정보보안센터를 통합보안센터로 확대·개편하면서 보안 인력 확충에 주력(계열사별 보안문제를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위기에 적극 대응)

- 공공 및 민간 기업의 정보보안 전문이력 양성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 전개
 - (금융보안연구원) 금융보안 인력 신규 양성보다는 기존 금융IT 인력 재교육에 주력
 - 금융정보보호아카데미를 통해 2013년 20만명 이상의 교육생 배출, 전문 강사 선임·커리큘럼 보강 등 교육 기능 강화 계획
 - (삼성SDS)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과 정보보안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위한 MOU 체결
 - 정보보호대학원 과정 내 삼성 정보보호 트랙 개설 및 운영, 강사 및 멘토링 지원 계획

3) ‘국가사이버테러 위기대응과 정보보안산업 육성 법률개정안’ 회의에서의 발표 내용, 화이트 해커급 전문인력 양성과 기업 수요 맞춤형 보안인력이 필요하며, 정부 투자 영역에서 1,300명, 민간에서 3,700명 등 총 5,000명 규모의 화이트해커 육성

4) 정보보호최고책임자

5) 정보보호최고 책임자가 내외부 전문가 5인 이상으로 자체 전담반을 구성하여 매년 취약점 분석, 평가 실시

나. 응용 SW 시장 동향

기업들의 고객중심경영 추진으로 CRM(고객관계관리) 후속으로 CEM(고객경험관리) 시장 성장

- 모바일 기기 및 SNS의 확산 등으로 소비자 영향력이 증대되면서 고객경험관리를 도입하는 기업 증가
 - 브랜드 인지도 향상 및 유지·고객과의 소통이 기업 경영의 주요 화두로 부상하면서 최상의 고객경험을 제공하는데 주력
 - 데이터마트·데이터마이닝 분석 및 타겟 마케팅 중심의 CRM에서 고객 경험관리를 통한 고객 통찰력 확보와 실제 비즈니스 반영으로 진화
 - 고객경험관리를 통해 고객과 일대일로 소통하고 차별화된 마케팅 요소를 제공하기 위한 핵심요소로 고객경험관리가 대두
 - 구매→마케팅→판매→서비스에 이르는 프로세스에서 모든 채널·기기를 포괄하여 일관되고 개인화된 경험 제공에 주목

- 주요 기업 고객 서비스 개선을 위한 고객경험관리 도입에 적극적
 - (SKB) 대고객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장애 징후가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고객 감동·만족도 극대화에 주력
 - (SKT) 매월 고객중심경영 회의체 운영, 고객경험관리를 통해 고객이 겪은 부정적 경험들을 찾아내고 개선하는데 주력
 - (ADT캡스) 고객 계약 해지 예방과 서비스 대응을 위한 고객경험관리 도입 검토
 - (파라다이스호텔부산) 고객 불편사항·기대사항 파악, 고객 잠재적 요구 발굴을 통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목적의 고객경험관리 도입 추진
 - (아모레퍼시픽) 브랜드·유통경로를 포괄하는 고객 데이터 통합을 통해 마일리지·프로모션·고객 생애주기별 고객경험관리 활동 차별화
 - (코레일) 고객경험관리 도입을 통해 승차권 예약에서 도착까지 34개 경험경로와 105개 세부적인 경험을 대상으로 고객 불편사항 개선

공정거래위원회, 핵심 정보 접근 업무에 대해 공정거래법 개정안⁶⁾
(일감몰아주기 규제) 제외 적용

- (ERP) 비계열사와 거래할 경우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정보 유출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보안성 업무에 해당
 - ERP 개발·관리 업무의 경우 기업 핵심 정보에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출 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
 - 따라서 ERP의 경우 일감몰아주기 규제 적용에 있어 신중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는 판단
 - 보안성 업무 범주와 관련하여 개발 업종 전체를 제외하기 보다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
 - IT서비스 업무에서 다루는 기밀 정보의 범위와 범위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핵심 내용이 될 것으로 예상

- 반면, 예외 사항을 제외한 각종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와 제재는 강화될 전망
 - 납품 단가 후려치기, 구두 발주 등과 같은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가 주요 대상
 - 납품단가 부당인하 대기업 신고 시, 블랙리스트 등재로 인한 불이익 개선
 - 신고자 익명성이 보장되는 ‘소프트웨어 산업 불공정 하도급 거래 제보센터’를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운영(2013년 8월부터)

6) 2013년 7월 대기업의 부당 일감 몰아주기 방지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통과, 광고·물류·SI 업종이 대상. 효율성·보안성·긴급성 등 3가지 경우를 규제의 예외 대상으로 인정

다. 임베디드 SW 시장 동향

자동차 전장화 비율 증가, AUTOSAR · ISO 26262 관련 차량용 SW 개발 열기 고조

- (NIPA) 2030년 전 세계 자동차 전장화 비율 50%까지 확대
 - 전 세계 자동차 전장화 비율은 2010년 35%에서 2030년 50%까지 확대 전망
 - 자동차 전체 개발비 중 SW 개발 비용도 2000년 20% → 2010년 38% → 2020년 54%로 HW 개발 비용을 추월 예상
 - 자동차 전장품 다양화·고도화에 따른 국제 표준인 ISO26262·AUTOSAR 관련 SW 및 솔루션 개발 중요성 증가

- 국내 자동차 관련 임베디드 SW 업계, 관련 제품 및 솔루션 개발에 박차
 - (인포뱅크) AUTOSAR 솔루션과 컨설팅 사업자에 역량 집중, AUTOSAR 준수를 위한 SW 개발툴 출시(현대자동차 공급)
 - (MDS테크놀로지) ISO26262와 관련된 컨설팅 사업에 주력, 자동차 제조사와 컨설팅 협약 진행
 - (피엘케이테크놀로지) 차선이탈방지 솔루션 관련 솔루션 국산화에 주력
 - (미디어젠) 차량용 음성인식 플랫폼 개발, 서버형 음성인식 인터페이스 판매에 주력

표		주요 차량용 SW 개발 기업 현황		
기업명	매출액(백만원)			사업 내용
	2010년	2011년	2012년	
인포뱅크	53,454	69,487	86,874	AUTOSAR 전장부품 개발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 제공
MDS 테크놀로지	62,136	61,065	63,492	AUTOSAR, ECU통합 가상화 솔루션, 자동차 인포테인먼트 SW(미러링크, OCU, ECU 통합) 개발

피엘케이 테크놀로지	3,934	4,099	N/A	차선이탈경보장치, 차량용 블랙 박스, 디지털운행기록계 개발
미디어젠	1,677	3,387	4,074	음성인식 솔루션 개발, 서버 기반 미들웨어 대화형 엔진 개발

자료: 공시자료 및 각사 홈페이지

- 차량 간 통신 모듈 SW 및 관련 보안·관제 인프라 솔루션 개발도 활기
 - 美 자동차기술협회(SAE) 차량 간 통신모듈 탑재 의무화 방안 검토, EU 자동차 업계 2016년까지 모든 차량에 통신시스템 구축 의무화 결정
 - 특정 주파수로 차량 간 통신망을 구축, 교통량 예측사고 방지·매연 배출량 분석·교통정보 공유 등에 활용 목적
 - (인포뱅크) 차량용 통신모듈 및 미인가 외부 네트워크 차단 관련 보안 솔루션 개발 추진 중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차량 간 고속 송수신 메시지 암호화 보안칩 개발 중

라. 공개 SW 시장 동향

리눅스 개발 기여도에서 삼성·퀄컴·구글 등 모바일 관련 기업이 주도, 서버에서 모바일로 중심이동 가속화

- 기업 소속 개발자가 리눅스 커널 개발에 더 많이 기여, 대형 리눅스 프로젝트의 증가가 주요인으로 분석
 - (리눅스 재단) 커널 개발에 따른 보수를 받지 않는 개인개발자가 13.6%를 수정(패치)하면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 소속이 알려지지 않은 개발자를 개인개발자로 가정하여 포함하면 개인개발자는 개발 기여도에서 16.9%를 차지
 - 반면, 특정 회사나 단체에 소속된 개발자의 기여도는 80% 이상으로 리눅스 커널 개발자가 대부분 고용되어 있으며, 수요도 높은 것으로 분석
 - 보수를 받지 않는 개인개발자의 비중은 2012년 14.6%에서 2013년 13.6%로 감소

- 리눅스 개발 중심 주체가 서버 기업에서 모바일 기업으로 이동
 - 리눅스 커널 개발 기여도 순위에서 Texas Instrument, 삼성전자, 구글, Linaro 등 모바일 관련 기업 및 단체가 10위권에 포진
 - (Linaro) ARM 기반 리눅스 오픈소스를 지향하는 엔지니어 중심의 비영리 단체(ARM, Freescale, IBM, 삼성, ST-Ericsson, Texas Instrument 등이 결성)
 - 엔터프라이즈 서버 전문 기업은 레드햇과 IBM만 순위에 랭크
 - 엔터프라이즈 서버에서 스마트폰/태블릿, 스마트디바이스 등으로 리눅스 적용 범위 확대가 개발 기여도 변화의 주요인으로 분석

표 리눅스 커널 개발 기여도 순위

순위	회사명	Change	Total	순위	회사명	Change	Total
1	None	12,550	13.6%	16	NVidia	1,192	1.3%
2	Red Hat	9,483	10.2%	17	Freescale	1,127	1.2%
3	Intel	8,108	8.8%	18	Ingics Technology	1,075	1.2%
4	Texas Instruments	3,814	4.1%	19	Renesas Electronics	1,010	1.1%
5	Linaro	3,791	4.1%	20	Qualcomm	965	1.0%
6	SUSE	3,212	3.5%	21	Cisco	871	0.9%
7	Unknown	3,032	3.3%	22	The Linux Foundation	840	0.9%
8	IBM	2,858	3.1%	23	Academics	831	0.9%
9	Samsung	2,415	2.6%	24	AMD	820	0.9%
10	Google	2,255	2.4%	25	Inktank Storage	709	0.8%
11	Vision Engraving Systems	2,107	2.3%	26	NetApp	707	0.8%
12	Consultants	1,529	1.7%	27	LINBIT	705	0.8%
13	Wolfson Microelectronics	1,516	1.6%	28	Fujitsu	694	0.7%
14	Oracle	1,248	1.3%	29	Parallels	684	0.7%
15	Broadcom	1,205	1.3%	30	ARM	664	0.7%

자료: The Linux Foundation, “Linux Kernel Development: 2013 Update”

2. IT서비스 동향

빅3 IT서비스 기업, ICT·솔루션 전문기업을 표방하면서 해외 진출 정체성 확립 및 매출 확대에 주력

- 빅3 IT서비스기업의 2012년 해외 매출액은 총 7,114억원으로 2011년 5,440억원 대비 30.8% 증가
 - (삼성SDS) 2012년 해외 매출액이 4,333억원으로 2011년 대비 44.0% 증가
 - (LGCNS) 2012년 해외 매출액이 2,305억원으로 2011년 대비 38.8% 증가
 - (SKC&C) 2012년 해외 매출액이 476억원으로 2011년 대비 38.2% 감소

- 빅3 IT서비스 기업의 2012년 해외 계열사를 통한 매출액은 3,086억원으로 2011년 대비 12.7% 증가
 - 삼성SDS만 해외 계열사를 통한 매출액이 21.2% 증가했으며, LGCNS와 SKC&C는 해외 계열사를 통한 매출액이 감소
 - 해외 매출액에서 해외 계열사를 통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50.3%에서 2012년 43.4%로 7.0%p 감소
 - 빅3 IT서비스 기업의 경우 해외 계열사보다는 본사를 통한 해외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

표 빅3 IT서비스 기업 해외 매출액 및 해외 계열사를 통한 매출액

기업명	해외 매출(억원)			해외 계열사를 통한 매출(억원)			해외 계열사를 통한 매출 비중	
	2011	2012	증감	2011	2012	증감	2011	2012
삼성SDS	3,009	4,333	44.0%	1,925	2,333	21.2%	64.0%	53.8%
LGCNS	1,661	2,305	38.8%	755	732	-3.0%	45.5%	31.8%
SKC&C	770	476	-38.2%	59	21	-64.4%	7.7%	4.4%
계	5,440	7,114	30.8%	2,739	3,086	12.7%	50.3%	43.4%

주) 국내 계열사의 해외 프로젝트를 통한 매출은 포함되지 않음
 자료: 전자공시시스템, 별도 재무정보 기준

- 2012년 기준 빅3 IT서비스 기업의 해외 계열사는 총 42개
 - 계열사 업종의 경우 IT서비스 업종이 66.7%인 28개 기업
 - 그 다음으로 물류 19.0%(8개), 인터넷 서비스 7.1%(3개), 해외 사업 투자 4.8%(2개), SW 개발 2.4%(1개) 순으로 나타남
 - 물류 관련 계열사가 상대적으로 많은 이유는 삼성SDS의 물류IT 서비스 사업과 관련이 있음
 - 계열사 소재지의 경우 아시아 66.7%(28개), 유럽 16.7%(7개), 북미 7.1%(3개), 중남미 9.5%(4개)로 나타남

표 빅3 IT서비스 기업의 해외 계열사 소재국 현황(2012년 기준)

지역	아시아(28개)	유럽(7개)	북미(3개)	중남미(4개)
소재국	중국(9), 인도(4) 필리핀(3), 홍콩(3) 인도네시아(2) 일본(2) 싱가포르(2) 말레이시아(1) 베트남(1) 태국(1)	네덜란드(2) 영국(3) 스페인(1)	미국(3)	브라질(2) 멕시코(1) 콜롬비아(1)

- 2013년 각 사별 해외진출 색깔 찾기 및 해외 매출 극대화에 주력
 - (삼성SDS) 국내 대외 사업 철 수 후 해외 사업에 주력
 - 스마트타운, 스마트 매뉴팩처링, 스마트 컨버전스, 스마트 시큐리티, 스마트 로지스틱스, 스마트 ICT 아웃소싱 등 6개 분야에 역량 집중
 - (LGCNS) 스마트 교통, 스마트 그린시티, 스마트 팩토리 등의 분야 자체 솔루션 사업 강화
 - 무인헬기, 태양광(불가리아), 그룹웨어(일본), 물류(말레이시아), 셋톱박스(미국) 등 솔루션 다각화와 중점 시장 발굴에 주력
 - (SKC&C) 모바일 커머스, IT-SoC 사업을 중심으로 수주형 SI 사업·솔루션 기반 서비스 사업·현지 파트너십 강화에 주력
 - 북미 및 유럽 지역은 모바일 커머스, 중앙아시아 IT-SoC 사업을 축으로 중고차매매(엔카) 해외 서비스 강화 추진

국내 IT컨설팅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R&D 투자 강화, 신산업 및 글로벌 레퍼런스·성공사례 발굴이 필요

- 국내 IT컨설팅 시장은 국내 4개 IT서비스 기업과 6개 글로벌 IT 컨설팅 기업이 양분
 - 빅3 IT서비스 기업이 매출 상위에 랭크되어 있으나, 전체 IT컨설팅 기업으로 확대하면 글로벌 기업에 비해 수익성과 경쟁력에서는 절대적 열세
 - 글로벌 IT 컨설팅 기업의 경우 국내 IT컨설팅 기업에 비해 평균 매출액은 14배, 영업이익률은 35.1배를 상회(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2012)
 - IT컨설팅 인력 평균 단가에서도 글로벌 기업이 국내 기업의 2.2배 높음
 - 특히, 공공 부문 정보화 사업의 대기업 참여 제한과 삼성SDS의 국내 대외사업 철수로 글로벌 IT컨설팅 기업의 영향력은 더욱 확대될 전망
 - IT 및 융합산업 관련 컨설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R&D 투자 확대, 신산업 분야 및 글로벌 레퍼런스 및 성공사례 발굴 등이 필요

표 국내 IT컨설팅 기업 매출액 순위 변화

순위	2010	2011	2012
1	삼성SDS(한)	삼성SDS(한)	삼성SDS(한)
2	한국IBM	액센츄어코리아	한국IBM
3	액센츄어코리아	한국IBM	LGCNS(한)
4	LGCNS(한)	LGCNS(한)	액센츄어코리아
5	SKC&C(한)	SKC&C(한)	SKC&C(한)
6	한국HP	한국HP	한국HP
7	한국오라클	한국오라클	한국오라클
8	딜로이트컨설팅	딜로이트컨설팅	딜로이트컨설팅
9	한국마이크로소프트	포스코ICT(한)	포스코ICT(한)
10	포스코ICT(한)	한국마이크로소프트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주) 기업별 IT컨설팅 매출액 순위는 IT사업과 별도로 발주된 개별 IT 컨설팅 매출과 SI 사업 내에 포함되어 발주된 임베디드 IT컨설팅 매출이 포함된 순위
 자료: IDC(2012. 5, 2013. 6)

3. 신사업 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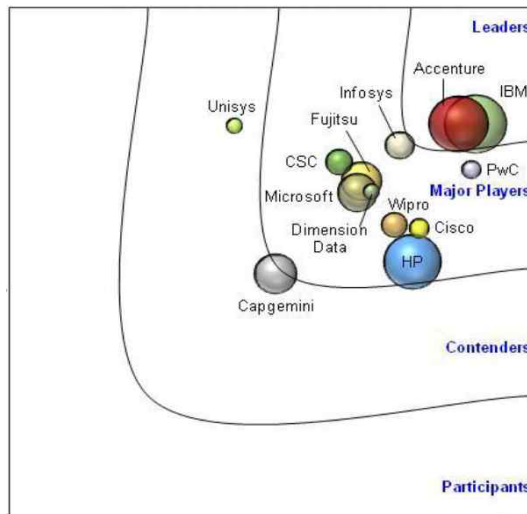
가.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고객의 비즈니스 혁신에 대한 지원 여부가 클라우드 서비스 벤더를 평가하는 핵심 요소

- IBM, 클라우드 전문 서비스 리딩 벤더 차지(IDC, 2013. 9. 12)
 - 기술적인 통찰력과 숙련도, 산업 통찰력과 숙련도, 글로벌 자원 활용 측면에서의 강점이 시장 주도 벤더 선정의 주요 요인
 - 클라우드 전문 서비스 관련 IBM의 미래 전략도 리더 선정의 요인 중 하나

표

IDC MarketScape on Cloud Professional Service



자료: IDC(2013. 9), “IDC MarketScape on Cloud Professional Service”

- 클라우드 기술을 기반으로 한 고객의 비즈니스 혁신 지원이 클라우드 전문 서비스 벤더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능력으로 인식
 - 또한, 혁신적인 솔루션, 솔루션 사용 고객 수, 연구 및 혁신 역량, 산업 전문성, 글로벌 투자 등도 클라우드 전문 서비스 벤더가 갖추어야 할 주요 역량으로 평가

**오라클, 애플리케이션 · 소셜 · 플랫폼 · 인프라스트럭처 등 4대 축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공세 강화**

- (오라클) 애플리케이션, DB, 자바, 스토리지 등을 클라우드로 제공하는 퍼블릭 클라우드 전략 발표(오라클 오픈월드 2013)
 - 현재 ERP, HCM 등을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으나 IaaS, PaaS, J(Java)aaS 등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영역 확대 추진
 - 업계에서 유일하게 애플리케이션, 소셜 플랫폼, 인프라까지 통합된 크로스 서비스로 서비스 포트폴리오를 확장
 - 개별적인 관점에서의 클라우드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다른 벤더와 차별화를 통해 클라우드 시장 주도권 확보에 나서는 것으로 분석

그림

Oracle Cloud: Complete Suite of Integrated Service

Application Service	Social Service	Platform Service	Infrastructure Servi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lobal Human Resource - Talent Management - Sales - Marketing - Service - ERP - Enterprise Performance Manage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ocial Marketing - Social Engagement & Monitoring - Social Network - Social Data & Insigh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atabase - Database Backup - Java - Developer - Mobile - Document - Business Intelligence - Cloud Marketpla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bject Storage - Compute - Messaging - Cache - Identity - Sync

자료: 오라클

나. Mobile Computing

금융권, 모바일 카드 서비스 강화를 통한 통신사 주도의 모바일 금융거래 시장 공세 강화

- KB국민, NH농협, 롯데, 삼성, 신한, 현대카드 6개사 공동 모바일 카드 서비스 출시
 - 스마트폰 앱 기반 모바일 카드로 통신사 발급 수수료와 이용 수수료 등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장점
 - 앱 기반 모바일 카드의 경우 앱 실행 후 일회용 카드번호를 발급 받아야 하는 편의성에서 단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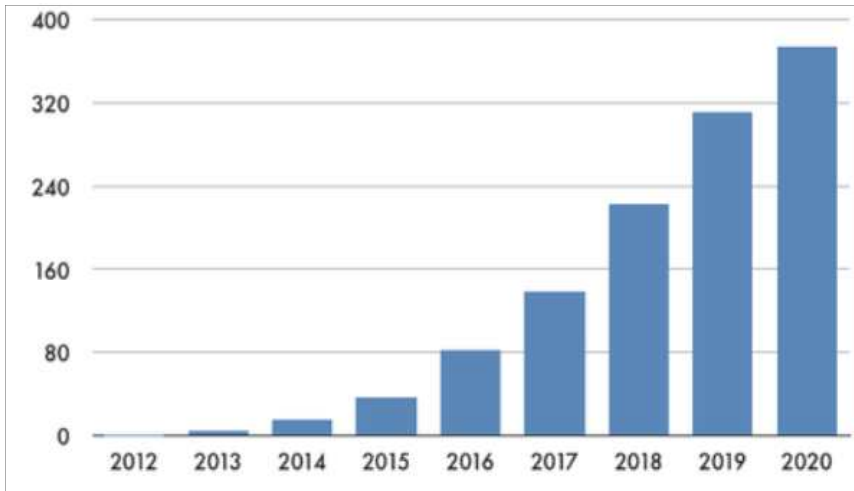
- 금융결제원·16개 시중 은행, 은행공동 스마트폰 지급결제서비스(뱅크월렛)를 기존 SK텔레콤 고객에서 KT고객까지 확대
 - (뱅크월렛) 은행권이 발급하고 있는 현금카드와 충전형 선불카드인 뱅크머니를 NFC 통신이 가능한 스마트폰에 탑재해 사용하는 스마트폰 지갑
 - CD/ATM에서 현금인출, 계좌이체 등의 서비스 이용, 오프라인 가맹점과 모바일 쇼핑몰 등 온라인 가맹점에서도 결제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
 - 세븐일레븐, 대구백화점, AK백화점, 그랜드 백화점을 비롯, 카카오특 쇼핑몰, 농협인터넷쇼핑몰, 한국사이버결제 및 이니시스 제휴 가맹점 등으로 확대할 계획

- 금융권의 모바일 카드 및 지급결제 서비스가 강화되면서 통신사의 USIM 기반 모바일 카드 서비스와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전망
 - 현재까지 모바일 카드 서비스는 KT(비씨카드), SK텔레콤(하나SK카드)가 주도
 - 모바일 결제 시장을 놓고 주도권 확보를 위한 금융권과 통신사의 경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

액티브 라이프 스타일 확장, 지속적인 기술 진화, 기존 시계 제조사들의 시장 진입으로 스마트워치 시장 폭발적 성장

- 2020년 전세계 스마트워치 출하량은 3억 7,500만대에 이를 전망 (NextMarket Insight)
 - 2014년 1,500만대 수준에서 연평균 70% 이상씩 증가
 - 기존 시계 제조사들의 스마트 기술 도입 가속화로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

그림 전 세계 스마트워치 연간 출하량 추이(단위: 백만대)



자료: NextMarket Insight(2013. 9. 26)

- 발열·배터리 문제, 독자적인 통화 및 데이터 기능 문제 해결이 스마트워치 시장 성장의 선결과제
 - 현재까지 스마트워치는 스마트폰 및 태블릿PC의 보조재로 인식
 - 기술 문제가 해결되면 독립적인 스마트워치 시장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전망
 - 운영체제는 신생 OS(예: 페블 OS) 및 기존 운영체제(예: iOS, 안드로이드)가 시장에서 경쟁할 것으로 예상

다. 빅데이터(Big Data)

게임 업종, 로그분석을 통한 게임 내 불법행위 단속 목적으로 빅데이터 분석 도입 증가

- 엔씨소프트, 네오위즈게임즈 등 온라인 게임업체를 중심으로 빅데이터 분석 도입 및 활용 증가
 - (엔씨소프트) 기존 경영정보 분석시스템과 별도로 로그 분석만을 위해 하둡 기반 자체 시스템 설계
 - 로그데이터 분석을 통해 계정 도용과 같은 고객들의 민감한 민원에 대응
 - 또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여부에 대한 검출 알고리즘 도출에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
 - (네오위즈게임즈) 한국EMC의 빅데이터 솔루션인 ‘그린플럼’을 도입하여 활용
 - 어뷰징⁷⁾ 발생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장기간 축적된 여러 유형의 2~3년치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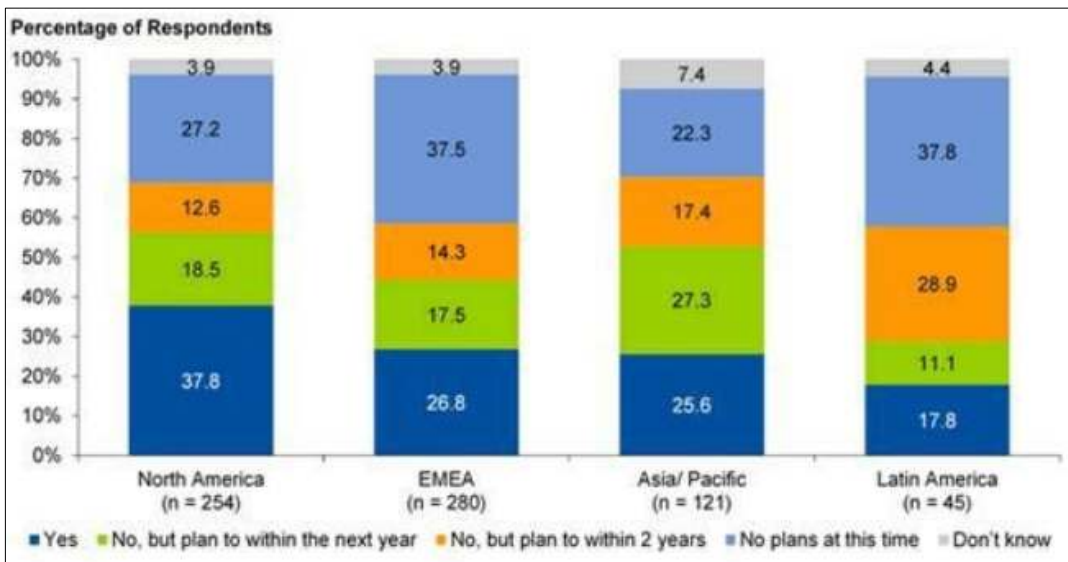
- 모바일 게임에서는 파이프락스(5rocks, 대표 이창수)가 빅데이터 분석 툴 및 컨설팅을 제공
 - 특정 시간 대 데이터량 증가에 대해 서버 단에서 성능을 관리할 수 있는 빅데이터 분석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적용
 - 고가의 솔루션 및 자체 빅데이터 분석 인력이 없어도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파이프락스 분석 툴의 강점
 - 모바일 게임의 경우 대용량 데이터 처리가 회사의 수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빅데이터 분석 툴의 도입이 증가할 전망

7) 한 명의 사용자가 여러 계정을 만들고 그 중 하나의 계정으로 자원을 몰아주는 것과 같이 개인이 본인의 계정 외에 부계정 등 다중계정 조작을 통해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행위

저조한 ROI · 분석 기술 부족 · 솔루션 부재가 빅데이터 투자를 가로막는 주요 애로사항

- 빅데이터 시장 진입 지연, 투자 계획 의지에 비해 명확한 계획 부족, 저조한 ROI가 주요 원인
 - 2013년 전세계 기업의 64%가 빅데이터 기술 관련 투자 계획 및 투자 시작(Gartner)
 - 반면, 솔루션 구입 등 투자에 나선 비율은 30%, 실제 프로젝트를 시작한 기업은 8%에 불과
 - 빅데이터 도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대한 이해 부족, ROI의 불확실성이 빅데이터 도입 및 투자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
 - ROI의 경우 2013년 하루 1달러 투자 시 투자회수효과는 55세트에 불과(위키본)

그림 지역별 빅데이터 투자 의향



자료: Gartner(2013. 9. 23)

- 국내의 경우 분석 기술의 부족, 솔루션 부재, 경영진의 관심 부족 등이 빅데이터 도입을 가로막는 주요 저해요인
 - 빅데이터 관련 전문성 부족, 외부 솔루션에 대한 기대와 신뢰도 저하, 경영진의 무관심이 복합적으로 작용
 - 빅데이터 전문가 육성을 통한 노하우 축적이 빅데이터 도입 활성화의 전제조건으로 분석
 - 성공적인 빅데이터 도입과 활용을 위해서는 성과 도출에 충분한 데이터 축적과 이를 기반으로 파일럿 프로젝트를 통한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

표 빅데이터 도입 시 가장 큰 어려움					
구분	분석 기술 부족	솔루션 부재	경영진 관심 부족	예산 부족	기타
응답 비중	33.8%	16.5%	12.2%	10.0%	27.5%

n=1,586

자료: 한국IDG(2013. 9. 25)

라. Social Computing

소셜미디어를 악용하는 소셜 스팸 급증으로 보안 위협 증가,
페이스북에서만 연간 2억 달러 피해 발생

- 2013년 상반기 소셜 스팸 355% 증가⁸⁾, Link 스팸, 텍스트 스팸 등이 소셜 스팸의 주요 유형(Nexgage)
 - 전체 소셜 앱의 5%가 스팸으로 분류, 스팸 애플리케이션, 소셜 봇, 가짜 계정, Like Jaker 등이 포함
 - 스팸 방지 기술의 발전과 스팸 관련 법규제가 강화되면서 스팸 발송업자의 활동 무대가 소셜 미디어로 이동
 - 소셜 스팸 역시 스팸 메일과 마찬가지로 귀찮은 존재를 넘어 개인 정보 및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보안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과 주의가 필요

- 페이스북의 경우 소셜 스팸 업자로 인해 연간 2억 달러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The Guardian)
 - 페이스북 광고는 구글의 애드센스 서비스를 이용하지만, 감시를 피한 광고글은 전체 페이스북 광고물의 9%를 차지
 - 소셜 스팸은 소셜미디어 사용자는 물론 소셜미디어 서비스 사업자, 광고 계약 업체에게도 피해
 - 소셜 스팸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동화된 탐지·분류·제거 시스템의 도입과 함께 소셜 미디어 보안 및 규정 관련 거버넌스 도입이 필요
 - 이용자의 경우 의심스럽거나 불분명한 링크 및 텍스트에 접근하지 않는 개인적 주의가 필수

8) 2,500 소셜 미디어 계정에서 나온 글이나 광고, 메시지 등 6,000만개 콘텐츠를 분석한 결과

주요 은행, 마케팅·홍보 채널에서 고객상담 및 민원 창구로 SNS 활용 확대

- 외환은행, 하나은행 등 주요 은행을 중심으로 SNS를 고객 상담 및 민원 창구로 활용
 - (외환은행) 트위터를 통해 외환은행에 궁금한점, 애매한 점 알림 서비스
 - (하나은행) 트위터 상담 서비스 뿐만 아니라 페이스북에 ‘하나 가상브랜치’ 개설
 - (신한은행) 스마트폰 앱 보안, ATM 장애, 신상품 가입 시 필요 서류 정보 등에 대한 내용 제공

- 은행권 SNS가 마케팅 및 홍보에서 고객상담 및 민원 창구로 진화
 - 지점 방문 혹은 전화보다는 편리하고 공식 답변/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
 - 향후 SNS를 통한 상담과 민원 제기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사적인 차원에서의 대응방안이 필요
 - 진정한 소통의 창구가 되기 위해서는 고객 서비스 개선 활동 차원에서 신속하고 친절한 답변 제공이 중요
 - 성공적인 SNS 운영을 위해서는 전담 조직 및 전문인력 배치, SNS 대응 매뉴얼 마련, 해당 부서 간 정보 공유를 통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

4. SW 기업 동향

가. 신제품·서비스 출시 동향

기업명	내용
마크애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명: 워크스페이스 세이퍼 ▪ 출시일: 2013. 9. 5 ▪ 제품 개요: 일반 문서, OA, CAD, GIS 파일 및 개발 소스코드 등 업무 시 생성되는 다양한 형태의 중요 데이터를 가상화 디스크에 저장해 주는 솔루션
소프트포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명: 제큐어투웨이 ▪ 출시일: 2013. 9. 10 ▪ 제품 개요: 인터넷 금융사기 수법에 대응할 수 있는 인증 솔루션
티맥스 티베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명: 인피니티 ▪ 출시일: 2013. 9. 11 ▪ 제품 개요: 데이터 수집(인피니링크), 처리(인피니캐시), 저장(티베로 6.0), 분석과 활용(인피니데이터 3.0) 관련 제품군
지란지교소프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명: 닥스트림 ▪ 출시일: 2013. 9. 12 ▪ 제품 개요: PC 작업 문서 파일을 실시간으로 클라우드에 저장하는 서비스
카카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명: 카카오 그룹 ▪ 출시일: 2013. 9. 11 ▪ 제품 개요: 그룹 멤버끼리 소식·정보·사진 등을 공유할 수 있는 그룹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디오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명: 디오노트 ▪ 출시일: 2013. 9. 16 ▪ 제품 개요: 디지털 잉크 텍스트 편집 기술을 적용, 손으로 작성한 글자를 텍스트로 변환해 저장하는 손글씨 노트작성 앱
알서포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명: 리모트콜 비주얼팩 ▪ 출시일: 2013. 9. 16 ▪ 제품 개요: 스마트폰 카메라와 무선인터넷을 통해 상대방과 실시간으로 영상을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

자료: 각사 보도자료 정리

기업명	내용
와이즈허브 시스템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명: GRADIUS DLP 어플라이언스 ▪ 출시일: 2013. 9. 22 ▪ 제품 개요: 서버 및 운영체제(OS·DBMS)가 포함된 통합 내부 정보유출방지 솔루션
큐브피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명: 금융해킹방지 솔루션 ▪ 출시일: 2013. 9. 25 ▪ 제품 개요: 메모리 해킹, 피싱, 파밍 등 인터넷뱅킹에 대한 위협 방지 솔루션
LGI노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명: LED 조명 무선제어 솔루션 ▪ 출시일: 2013. 9. 25 ▪ 제품 개요: 실내외 밝기에 따라 자동으로 최적의 빛을 비추고, 수 천개의 조명을 개별 또는 그룹별로 제어하는 지능형 무선 제어시스템
인포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명: 웹사이트 방문고객 안심서비스 ▪ 출시일: 2013. 9. 30 ▪ 제품 개요: 웹사이트 악성코드를 조기에 탐지하고 제거하는 서비스
인프라웨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명: 폴라리스 오피스 링크 ▪ 출시일: 2013. 9. 26 ▪ 제품 개요: 클라우드 기반 PC·스마트폰·태블릿PC 등 다양한 단말을 이용해 문서를 저장하고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나노아이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명: 마트야 ▪ 출시일: 2013. 9. 29 ▪ 제품 개요: 슈퍼마켓과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 판매촉진 솔루션
아이크래프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명: 브랜드세이퍼 ▪ 출시일: 2013. 9. 30 ▪ 제품 개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홀로그램 스티커를 통해 정품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파나소닉 코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명: 터프패드 FZ-G1 ▪ 출시일: 2013. 9. 30 ▪ 제품 개요: 산업용 태블릿PC로 산업용 노트북인 터프북의 태블릿 PC 버전
아크로니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명: 아크로니스 모바일 에코 4.5 ▪ 출시일: 2013. 9. 30 ▪ 제품 개요: 문서 보안 및 편집 기능을 강화한 기업용 모바일 파일 관리 솔루션

자료: 각사 보도자료 정리

나. 해외 진출·국내 시장 진입 동향

1) 해외 시장 진출

- (포스코ICT) 중국 LED 합작회사 설립
 - 탄산강철 무인크레인시스템 등 엔지니어링 IT 사업과 허베이 그룹 계열사 5개 공장의 LED 교체 진행
 - 중국내 다양한 LED 공급망 구축을 시작으로 중국 진출 확대 기대

- (다산네트웍스) 사내 벤처인 J-모바일을 통해 일본 내 IP-PTT(IP기반 Push-To-Talk 무전) 전국 상용서비스 개시
 - (다산네트웍스) 서비스를 위한 차량 탑재형, 핸디형 단말기 개발·공급
 - (J-모바일) 전국 커버리자가 가장 높은 NTT도코모의 3G망 임차를 통해 일본 IP 기반 무선서비스 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

- (마이다스아이티) 러시아 현지법인 설립, 러시아 설계 기준을 반영한 토목분야 범용 구조해석 프로그램 Civil 출시 계획
 - 대규모 제품 발표회와 기술 세미나 개최를 통해 고객 발굴과 제품 적용 범위 확대를 계획
 - 브릭스 국가 중 중국과 함께 건설 투자 규모가 가장 큰 러시아 구조해석 프로그램 시장에 확고한 입지를 다질 것으로 예상

- (SK텔레콤) 중국 스마트교육 시장 진출
 - 중국 교육전문 IT 기업인 중칭그룹에 교육 지원 솔루션 판매 계약 체결
 - 스마트 기기 관리 MDM 솔루션과 중소 벤처 아이카이스트의 스마트 러닝 솔루션인 스쿨박스가 결합된 교육 지원 솔루션 제공
 - 중칭그룹은 SK텔레콤의 솔루션을 기반으로 10월말까지 중국 4개 도시 20개 학급에 스마트교실 구축을 완료할 계획

2) 국내 시장 진입

- (Vodafone) 국내 영업사무소 설립, M2M 시장 진출
 - 해외 진출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M2M 서비스 사업 계획
 - 이큐브랩과 파트너십 체결, 이큐브랩의 태양광 압축 쓰레기통 제품에 M2M 솔루션을 탑재, 호주 및 유럽 진출을 지원할 계획

- (텔릿와이어리스솔루션즈) 국내 중소기업 대상 M2M 솔루션 지원 비즈니스 강화
 - 한국법인을 아태시장 공략의 거점 기지로 운영, GPS/GNSS 사업, 오토모티브 시장, LTE 지원 등에 대한 투자 강화
 - SK텔레콤의 망 연동 호환성 인증(IOT) 획득 등 통신업체들과 파트너십 강화 추진

다. SW 기업 협력·제휴, M&A 동향

1) 협력·제휴

- (한글과컴퓨터-SK텔레콤) 한컴 씽크프리 플랫폼과 T클라우드 비즈 결합한 신규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 MOU 체결
 - 협력을 통해 개인용 클라우드 솔루션 개발, 해외 시장 진출 추진
 - 한글과컴퓨터의 사업 영역이 패키지, 모바일을 넘어 클라우드로 확대될 전망

- (코맥스-이니셜티) 영상 보안 사업 전략적 제휴
 - (코맥스) 이니셜티의 솔루션과 영상보안 사업을 접목하여 스마트폰과 CCTV, 관제가 모두 연동되는 신제품 개발 계획
 - 기술적 협력에서 나아가 신사업 개발, 해외 영상보안 시장 진출도 공동 모색할 계획

- (LGCNS-오라클) 아시아/태평양 지역 빅데이터 사업 진출을 위한 MOU 체결
 - 공동 솔루션 개발, 사업 기회 공동 발굴 추진 계획
 - (LGCNS) 빅데이터 솔루션 성능 및 서비스 강화, 연말까지 공동 솔루션 개발 완료 계획

- (현대오토에버-한국HP) 워크스테이션 솔루션 및 원격 그래픽 소프트웨어를 통한 효율적 업무 환경 구축 업무협약 체결
 - 3D 영상회의맞춤형 플랫폼 ‘스마트 콜라보레이션 워크스테이션’ 공동 개발
 - 향후, 다양한 산업군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고, 추가 기능을 개발하여 제품 구성을 확대할 계획

2) M&A

- (Vodafone) 보유 버라이즌 와이어리스 지분 Verizon에 매각(2013. 09. 3)
 - (Vodafone) 미국 통신 시장 철수, 유럽과 신흥 시장 비즈니스에 주력, 지분 매각 대금으로 유럽 시장에서 공격적 M&A에 나설 것으로 예상

- (삼성SDS) 계열회사인 삼성SNS 흡수 합병(2013. 09. 27)
 - 삼성SNS의 통신인프라 설계 및 구축 역량을 해외 시장 진출에 적극 활용할 계획
 - 중동, 중국 시장을 대상으로 교육, 의료, 공항 등 대규모 복합단지 대상 스마트타운 사업 추진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

라. 인증 및 지식재산권 동향

- 크루셜텍, ‘지문인식 방법, 장치 및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에 대한 특허’ 취득
 - 센서가 스캔한 여러 장의 지문 이미지를 재배열하는 방식에 관한 기술로 사용자의 지문 입력 방향에 관계없이 지문 인식이 가능
 - 특허를 바이오트랙패드(BTP)에 적용하여 개선된 통합 솔루션을 확보할 계획

- 알약, 통합 백신 프로그램인 알약 ‘VB100’ 9) 인증 획득
 - 원도 7 환경에서 악성코드 진단율을 측정하는 RAP 테스트에서 상위권 성적 달성
 - 5번째 인증 획득으로 알약 제품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입증할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

- 잉카인터넷, 안티바이러스 솔루션 ‘엔프로텍트 안티바이러스/스파이웨어 4.0’ ‘VB100’ 인증 획득
 - 4월 체크마크 인증에 이어 ‘VB100’ 인증까지 통과하여 제품 우수성 인정, 해외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잉카인터넷, ‘엔프로텍트 크립토 v1.1’ 국가정보원 암호모듈 (KCMVP)¹⁰⁾ 인증 획득
 - 제품 신뢰도와 보안성 검증으로 국가, 공공기관, 민간 기업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티맥스소프트, ‘제우스8’ 자바 EE7 인증 획득
 - 상용 제품으로는 세계 최초로 자바플랫폼 국제표준 자바EE7 인증 획득
 - 2003년부터 자바 인증을 지속적으로 획득, 글로벌 시장 공략에 주력할 계획

9) 영국 백신비교 평가업체인 Virus Bulletin에서 안티바이러스 제품의 성능이 기본적인 평가 기준에 충족하는 제품에만 부여되는 백신분야의 국제적인 인증. ‘100’은 평가에 사용된 와일드 리스트 악성 코드 샘플을 오진 없이 100% 탐지한다는 의미

10) 전자정부 시행령 제 69조 (암호모듈 시험 및 검증지침)에 의거 국가 및 공공기관 정보통신망에서 소통되는 자료 중에서 비밀로 분류되지 않는 중요정보의 보호를 위해 사용되는 암호모듈의 안전성과 구현적합성을 검증 하는 제도이며, 정보보호제품을 국가, 공공기관에 공급하기 위해서 필수로 획득하여야 하는 인증으로 2009년 1월부터 실시



IV. 국내외 정책 동향

1. 국내

가. 미래창조과학부

- 2013년 국가 DB사업 본격 추진(2013. 9. 17)
 - 보존가치 중심에서 민간 활용지원 중심으로 전환, 데이터 기반의 비즈니스 창출 본격화 지원에 주력
 - 다국어 음성언어 DB, 중소기업 수출마케팅 종합 DB, 한국형 효과음원 DB 등 총 15종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민간에 제공
 - 중소기업 등에서 즉시 활용이 가능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
 - 향후 데이터 제공, 유통, 활용 등 생명주기별로 데이터 생태환경을 조성, 촉진하기 위해 지식정보자원관리계획을 마련할 방침

표 2013년 추진 국가DB사업 현황		
No	사업명	사업내용
	주관기관	
1	수출 마케팅 종합정보 DB	상품별 해외 수입상, 해외기업, 바이어 정보, 해외 시장조사 정보 등 수출마케팅 정보 및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수출 유망제품의 DB구축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	다국어 언어음성 DB	자동차 네비게이션, 통·번역 솔루션 개발, 장애인 보조기기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가능한 일본/프랑스/스페인어의 언어 및 음성 DB구축
	한국전자통신연구원	
3	한국형 효과음원 DB	고가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영화, 방송 등에 사용되는 효과음원을 한국형 자료로 구축하여 독립·인디 영화사, 1인 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4	서울 유동인구 DB	서울 주요 1만 여개 지점의 유동인구 조사자료 및 서울시 주요 통계정보(인구·주택·교통 등), 이동통신사 정보 등을 융·복합하여 중소기업, 창업 희망자 등이 활용
	서울특별시	

5	전문건설 지원체계 DB	민간 중소기업 보유의 업종별 신기술공법 등 자료와 공공분야 기술자료의 분석·가공 DB를 구축하여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6	한국적 산업활용 디자인 DB	우리나라 역사·문화자료에 내포된 다양한 전통 문양 DB를 제품개발 등에 즉시 적용이 가능한 디자인 DB로 구축하여 중소기업 활용촉진
	한국문화정보센터	
7	역사현안 해외서비스 DB	독도, 동해, 위안부, 동북공정 등 일본, 중국 등 동북아시아 주변국의 역사 왜곡에 대응하기 위한 관련 역사자료의 영어/중국어/일본어 번역 DB구축
	동북아역사재단	
8	(LOD 기반) 생물정보 연계통합 DB	다양한 기관 보유의 기 구축 동물·식물·곤충 등의 생물정보 중 초·중·고 교과서에 수록된 생물자원 중심으로 LOD 융복합 및 제공
	국립수목원 등	
9	(LOD 기반) 한국사 연계통합 DB	다양한 역사기관에서 보유한 전문가 활용 중심의 DB에 대하여 한국사 주요 키워드를 기반으로 LOD 융·복합하여 일반인 활용수준으로 제공
	국사편찬위원회	
10	외규장각 의궤 종합 DB	프랑스로부터 145년 만에 우리나라로 반환된 조선시대 왕실 및 국가 주요 행사기록 등이 포함된 외규장각 의궤 DB구축
	국립중앙박물관	
11	고려청자 DB	우리나라 고려청자 국보·보물의 80%이상을 생산한 사적 68호 고려청자 요지의 유적 및 청자 관련 완본품, 도편 등 유물자료 DB구축
	강진군	
12	귀중본 고신문 DB	구한말 이후 시대의 중요한 사료적 가치가 있는 고신문 DB를 구축하여 역사 연구 및 우리나라 근대 문화, 시대상 파악 등에 활용
	국립중앙도서관	
13	한국문집총간 DB	신라 말부터 1,260여명의 역대 주요인물 문집 중 조선 순조 임금 개인문집(순재고) 등 조선 후기시대 주요인물의 문집 33편 DB구축
	한국고전번역원	
14	기호유학 고문헌 DB	충남대학교에서 보관하고 있는 충청도, 경기도 지역 유학파인 '기호(畿湖) 유학' 관련 고문헌, 고도서 및 육서심원 등의 DB구축
	충남대학교 도서관	
15	해방 전후 항공사진 DB	'45년 이후부터 미군에서 촬영·보관하였던 한반도 전 지역의 항공사진 DB를 구축하여 한반도 지형변화 연구 및 신문·방송 제작 시 활용
	국토지리정보원	

자료: 미래창조과학부(2013. 9. 17)

□ 2014년 예산 13조 5,746억원 편성(2013. 9. 30)

- 창조경제 조성 지원, 미래 대비 투자, 신산업 육성 중점 투자로 일자리 창출 및 경제살리기에 기여
- 2014년 총 지출은 13조 5,746억원으로 2013년 대비 5.8%(7,414억원) 증가
- (SW·디지털 콘텐츠) 4,983억원으로 2013년 대비 24.2%(971억원) 증가
 - SW 컴퓨팅 산업 원천기술 개발, SW전문인력 역량강화 등에 233억원 증액 등 SW 산업을 ICT 분야 핵심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
 - SW컴퓨팅 산업 원천기술 개발: 1,265억원(13년)→1,478억원(14년)
 - SW전문인력 역량강화: 150억원(13년)→170억원(14년)
- (국가정보화) 협업 기반 범정부 정보화 사업, 공공정보 정보화 지원 확대, 미래 지식재산의 원천자료 DB화 강화
 - 유비쿼터스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 38억원(13년)→98억원(14년)
 - 국가 DB구축 지원: 97억원(13년)→161억원(14년)
- (ICT 신산업 지원) 새로운 ICT 서비스 육성, IT 벤처기업 성장기반 구축, 스마트방송산업 육성 등
 - ICT창의기업 육성: 115억원(13년)→150억원(14년)
 - 범부처 Giga KOREA 사업: 130억원(13년)→ 293억원(14년)
 - 차세대 인터넷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 52억원(13년)→125억원(14년)
- (ICT 산업육성 기반 확충) ICT 산업 전반에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
 - 농어촌지역광대역가입자망구축활성화: 34억원(13년)→50억원(14년)
 - 무선인터넷 이용격차 해소: 10억원(13년)→41억원(14년)
 - 해킹바이러스대응체계고도화: 159억원(13년)→170억원(14년)
 - 정보격차 해소 지원: 150억원(13년)→152억원(14년)
 - ITU 전권회의 개최: 66억원(13년)→142억원(14년)

나. 안전행정부

- 공공정보 개방·공유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지침 발간(2013. 9. 2)
 -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정보의 처리 단계별 준수 사항 안내
 - (공공정보 개방·공유)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는 삭제·비식별화 처리 후 개방·공유하고, 불가피한 경우 개별 법률 근거를 확인하거나 당사자 동의를 받아 개방·공유
 - (공개된 정보 수집) 인터넷 등에 공개된 개인정보는 사회통념상 공개된 목적 범위 내에서 수집하되, 별도 제한 없이 공개된 개인정보는 법령상 소관 사무 수행에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 수집
 - (빅데이터 분석)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당초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만 필요 최소한 활용하고, 가능하면 비식별화 한 후 분석
 - 개인 비식별화 조치를 위한 단계별 조치사항과 방법 소개
 - 개인정보 유·노출을 예방하기 위해 보관·관리시 준수해야 할 안전 조치 사항, 개방·공유시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 필터링 및 모니터링 조치 방법 등을 안내

- 업무관리시스템 주요 기능 모바일에서도 구현(2013. 9. 26)
 - 메모보고·직원조회, 일정관리를 스마트폰·태블릿PC에서 언제 어디서나 즉시 처리
 - 보안 거용으로 안전한 전자우편 서비스를 통해 타기관과 자료 송수신 가능
 - 언제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모바일 오피스 구현, 정보 개방 및 공유 활성화, 정보 취약계층과의 소통 강화, 부처 내·부처 간 협력 및 소통 강화가 주요 내용

다. 국토교통부

□ 제5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수립(2013. 9. 26)

- ICT 융합 기술의 급속한 발전, 창조경제, 정부3.0으로의 국정운영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
- 공간정보로 실현하는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을 비전으로 국가공간정보 기반 고도화, 공간정보 융복합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공간정부의 공유·개방으로 통한 정부 3.0 실현이 3대 목표

표 제5차 국가공간정보정책 7대 실천과제 주요 내용	
전략	실천 과제
고품질 공간정보 구축 및 개방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간정보 품질 구축·갱신체계 확립, 3차원·실내 공간정보 구축 확대 · 지적경계와 실제경계 불일치에 따른 국민불편 해소, 지적재조사 추진 · 공간정보 단계적 개방, 민간 공간정보 공유를 위한 유통체계 개선 · 표준지원기관 운영, 국제표준활동 선도
공간정보 융복합 산업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지원센터 설치, 기술의실용화·상용화 적극 지원 · 공간정보산업 진흥시설 지정, 전담지원체계 마련 · 공간정보 SW 인증체계 마련, 해외진출 지원센터의 역할 강화
공간 빅데이터 기반 플랫폼서비스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상의 정확한 진단과 예측, 국정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 · 국정과제 성공적 추진을 위한 분석 모형 개발 지원, 분석모형 공유체계 구축
공간정보 융합기술 연구 개발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 수요에 염두를 둔 테스트베드 구축 등 실용화 지원 · 오픈소스 기반의 공간정보 SW 개발, 산업 맞춤형 공간정보 가공 기술 개발 · 실내 이치서비스 덧마루(플랫폼) 개발, 여가·복지서비스 기술 개발 · 안전한 도시관리체계 구축, 지하공간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 및 안전 관리를 위한 기술 개발 · 공간정보 전용위성기술, 3차원 데이터의 모바일 서비스 기술 개발 · 국토정보체계 구축, 북극지역 연구·자원개발을 위한 공간정보 구축
협력적 공간정보체계 고도화 및 활용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클라우드 기반의 공간정보체계 구축 · 기존 공간정보 갱신, 클라우드 데이터로 전환 · 클라우드에 의한 일괄서비스 체계로 전환 · 부처간 공간정보기반의 협업과제 적극 추진

<p>공간정보 창의인재 양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간정보 기반 교육콘텐츠발굴, 참여형 교육 활성화, 전문교원 양성 • 고용과 연계한 현장형 전문기술인력 양성, 재직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프로그램 운영 • 공간정보 스마트러닝 플랫폼과 직무수행 능력 평가 인증 체계 구축
<p>융복합 공간정보 정책 추진체계 확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간정보담당관제 도입, 공간정보활용지원체계 구축 • 국가공간정보 정책 성과 및 파급효과에 대한 평가 강화 • 법체계 정비, 협회·유사업종·기술자격 및 공무원 직류 통합

자료: 국토교통부(2013. 9. 26)

라. 산업통상자원부

- ICT 기반 에너지 수요관리와 가스에너지 안전분야 기술 개발 추진(2013. 9. 16)
 - 2013년도 하반기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지원계획 발표
 - 하반기 지원 규모(630억원): 중장기 과제 282억원, 단기과제 348억원
 - ICT 기반 스마트 플러그 관련 기술¹¹⁾, 정보가전기기 전력절감 기술, 에너지 다소비기기(건조기, 조명 등) 효율 향상 기술, 산업공정상에서의 소비 전력을 줄일 수 있는 공정개선 기술 등이 포함
 - 2014년도 중장기 R&D 과제 기획에도 ICT 관련된 기술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지원할 계획

마. 문화체육관광부

- 미래부 공동, 콘텐츠 해외진출 확대 방안 발표(2013. 9. 12)
 - 2017년까지 연 100억 달러 수출 달성으로 콘텐츠강국 목표 실현
 - 남미, 중동 등 신흥시장 개척, 아시아 등 지역별 맞춤형 마케팅 강화
 - 콘텐츠 펀드 등을 활용한 해외진출 투자·용자 자금지원 확대
 - 콘텐츠, 유통플랫폼, 제조 및 서비스업 등 범부처 해외진출협의회 구성·운영
 - 4개 추진 전략과 10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
 - 지역별 맞춤형 마케팅 활성화: 지역별 시장 진출 전략 추진, 현지 마케팅 활성화, 수출산업 연계 진출 및 현지 창업 지원
 - 수출 콘텐츠 경쟁력 강화: 분야별 특화 진출 전략 추진, 선도 및 핵심 콘텐츠 기술 개발
 - 해외진출 지원 기반 구축: 글로벌 인력양성 및 금융지원 확대, 해외 저작권 보호 강화, 해외 진출 협력체계 구축
 - 호혜적 교류 협력 확대: 범아시아 교류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쌍방향 문화교류 확대

11) 스마트플러그 :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가전제품이 사용되지 않을 때 전원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차단하거나, 전기사용량을 측정·제어하는 장치

2. 해외

- 中 충칭시, 2013년 전략적 신산업 100가지 중점 프로젝트 발표 (2013. 9. 26)
 - 2015년까지 총 투자액 2,195억 위안 투자(2013년 630억 위안), 컴퓨터산업·통신설비·장비제조업·의료산업 집중 육성
 - 2015년까지 전략적 신산업 생산액 1조 3천위안 달성
 - 컴퓨터 산업에서는 Foxconn, Quanta 등의 기업을 중심으로 Amazon, ASUS, Toshiba 등의 브랜드 태블릿PC를 1,000만대 규모로 생산할 계획
 - 통신설비 산업에서는 스마트가구 제어시스템 프로젝트 실시, 연간 1억대의 휴대폰 생산규모의 생산공장이 설립될 예정
 - 장비제조업에서는 화창(华创) 로봇산업단지 가동, 5년간 10억 위안을 투자하여 완제품+부품 수직 통합할 계획

- 덴마크, 스마트그리드 대규모 투자 계획(2013. 9. 10)
 - 2020년까지 90억 덴마크크로네를 스마트그리드 시스템에 투자
 - 풍력에너지와 증가된 전략 사용을 관리하기 위한 대책으로 스마트그리드 시스템 도입 결정
 - 2020년까지 화석연료 사용에서 완전 탈피 계획
 - 덴마크 기술대학교(DTU, The Technical University of Denmark)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 간 스마트그리드 시스템과 전기자동차 R&D 프로젝트 공동 진행을 고려
 - 덴마크 DONG Energy사의 경우 한국전력공사와 MOU 체결
 - 덴마크와 한국 간 스마트그리드 분야의 협력 증가 및 한국 기업의 덴마크 스마트그리드 시장 진출 가능성 증대 기대

- 美 표준기술연구소,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사이버본인인증시스템 개발 프로젝트에 총 700만 달러 투자 계획(2013. 9. 17)
 - ‘신뢰할수 있는 사이버 신원을 위한 범국가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
 - 보안 관련 부문을 비롯한 각종 첨단 기술 보유 사업자가 참여하는 민관 컨소시엄 형태로 진행
 - 총 700만 달러의 연구 기금을 기반으로 5개의 파일럿 프로젝트 진행
 - SIM 카드를 이용한 보안시스템 개발과 웨어러블 형태의 단말을 이용한 본인 인증 기술 개발(158만 9,400달러)
 - 신원 인증 에코시스템 내 구성원 간 상호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한 인증 마크(트러스트마크 프레임워크) 개발(172만 723달러)
 - 13세 이하 아동을 위한 온라인 프라이버시 정책 및 기술 개발(161만 1,349달러)
 - 군인들을 위한 인증 서비스 ‘Troop ID’ 개발(120만 4,957달러)
 - B2B 및 G2B 지원 인증서 개발(126만 4,074달러)

- 美 FDA, 모바일 의료 애플리케이션 관련 애플리케이션 정의, 평가 기준 등의 가이드라인 발표(2013. 9. 25)
 - 진단 애플리케이션과 의사들이 환자를 원격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료 플랫폼 등을 중점적으로 다룸
 - 모바일 의료 애플리케이션 가이드라인
 - 일반 의료기기에 적용되는 다수의 규제(QS) 준수
 - 라디오 주파수 무선기술 기반의 의료기기 가이드라인
 - 데이터 전송 보안, 데이터 백업 기능을 필수로 지정



V. 월간 SW 이슈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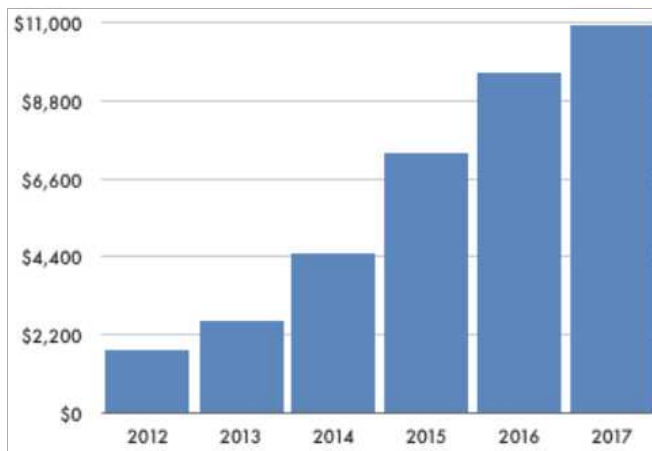
스마트홈 플랫폼 시장 동향

가. 서론

- 기기 스마트화 진전, 유무선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으로 스마트홈 시장 급성장¹²⁾
 - 주거문화 및 인구구조의 변화, 단말·네트워크 스마트화 진전에 따라 인간 행복·복지, 안전·편리를 지원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
 - (NetxMarkt Insight) 세계 스마트홈 서비스 시장은 2012년 20억 달러 수준에서 2017년 109억 달러까지 성장할 전망
 - (한국스마트홈산업협회) 국내 스마트홈 세계 스마트홈 시장은 2011년 4조 4,950억원에서 연평균 27%씩 성장하여 2016년 14조 8,744억원에 이를 전망

그림

세계 스마트홈 매니지드 서비스 시장 추이(단위: 백만 달러)



자료: NextMarket Insight(2013. 08)

12) 스마트홈은 지능형 정보생활기기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사람과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으로 인간 중심의 서비스 환경에서 유익한 그린·실감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로서, 홈네트워크 서비스 기반을 제공하는 홈플랫폼 기술, 정보생활기기의 접속을 위한 유무선 홈네트워킹 기술, 맞춤형 융합서비스제공을 위한 지능형 정보가전 기술, 쾌적하고 경제적인 생활환경 유지를 위한 그린홈 기술 등을 주요 기술로 함

표 국내 스마트홈 시장 현황 및 전망(단위: 억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인프라	2,611	2,689	2,877	3,021	3,263	3,449
서비스	13,353	15,019	17,449	20,565	23,487	27,057
기기	28,986	34,996	44,284	61,243	89,236	118,238
계	44,950	52,704	64,610	84,829	115,986	148,744

자료: 한국스마트홈산업협회(2012. 08)

□ 가구 내 스마트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되는 기기 수의 급격한 증가가 스마트홈 시장의 성장 요인

- 4명 가구 기준으로 인터넷 연결 기기의 수는 2012년 10개 → 2017년 25개 → 2022년 50개로 증가할 전망
- OECD 지역의 네트워크 연결 기기의 수는 2012년 18억개 → 2017년 58억 개 → 2022년 140억개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연평균 22.8%씩 증가)

표 4명 가구(2자녀 포함)에서 연결되는 스마트 기기의 수

2012	2017	2022
2 smartphones	4 smart phones	4 smart phones
2 laptops/computers	2 laptops	2 laptops
1 tablet	2 tablets	2 tablets
1 DSL/Cable/Fibre/Wifi Modem	1 connected television	3 connected televisions
1 printer/scanner	2 connected set-top boxes	3 connected set top boxes
1 game console	1 network attached storage	2 e-Readers
	2 eReaders	1 printer/scanner
	1 printer/scanner	1 smart metre
	1 game console	3 connected stereo systems
	1 smart metre	1 digital camera
	2 connected stereo systems	1 energy consumption display
	1 energy consumption display	2 connected cars
	1 Internet connected car	7 smart light bulbs
	1 pair of connected sport shoes	3 connected sport devices
	1 pay as you drive device	5 Internet connected power sockets
	1 network attached storage	1 weight scale
		1 eHealth device
		2 Pay as you drive devices
		1 intelligent thermostat
		1 network attached storage
		4 home automation sensors
Devices that are likely but not in general use		
eReaders	Weight scale	Alarm system
Sportsgear	Smart light bulb	In house cameras
Network attached storage	eHealth monitor	Connected locks
Connected navigation device	Digital camera	
Set top box		
Smart metre		

주) 숫자는 연결되는 기기의 갯수

자료: NextMarket Insight(2013. 08)

나. 스마트홈 서비스 시장 동향

- 스마트홈 시장은 유선 기반의 홈네트워크 중의 스마트홈 1.0에서 모바일, 보안, 융합형 사업모델의 스마트홈 2.0으로 진화
 - 보안 및 안전 관리, 에너지 및 온실가스 관리, 건강·보건, 스마트워크, 엔터테인먼트·교육, 스마트워크, 커머스 등의 수요 증가와 무선 네트워크의 기술 발전이 주요 진화 동인

표 스마트홈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		
구분	스마트홈 1.0	스마트홈 2.0
주 고객 대상	대형 주택 소유 부유층	1인 가구 포함 일반가정, 소형점포
사업 모델	홈 콘트롤, 미디어 판매	보안, 에너지 관리, 홈콘트롤
제어 방식	전용 콘트롤 패널	스마트폰
네트워크 방식	유선	모바일(3G/Wi-Fi)
플랫폼	전용 플랫폼	오픈 플랫폼

자료: KT경제경영연구소(2013. 07)

- 스마트홈 서비스 시장은 홈네트워크, 가전업체, 플랫폼 업체, 통신 서비스업체, 보안업체, 케이블/OTT사업자들이 치열하게 경쟁
 - 가전업체: 가전 시장 포화에 따라 커넥티드 가전+스마트 콘트롤로 스마트 홈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를 시도
 - 삼성전자, LG전자, GE, Whirlpool 등
 - 홈네트워크·건설 업체: 홈게이트웨이, 홈오토메이션을 중심으로 기존 및 신규 건축 시장에 주력
 - 삼성SNS(삼성SDS 합병), 코콤, 코맥스, 현대통신, 건설사 등
 - 통신 서비스 업체: 클라우드 및 네트워크 인프라, 막대한 가입자를 기반으로 망 및 데이터 사용량 확대에 관심
 - KT, SKT, LGU+, Verizon(美), AT&T(美) 등

- 케이블/OTT 사업자: 스마트TV를 통해 홈네트워크 및 스마트홈 서비스 시장 진출 추진
- 보안 업체: 스마트 디바이스 기반의 보안 서비스를 통해 스마트홈 서비스 시장에 진입
 - 에스원, 케이티텔레캅, ADT캡스 등
- 플랫폼 업체: 개방형 플랫폼(구글)과 폐쇄형 플랫폼(애플, 마이크로소프트)을 기반으로 스마트폰/셋톱박스를 스마트홈의 기본 디바이스로 활용하는데 주력
 -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Microsoft 등

표 주요 사업자별 스마트홈 사업 현황		
구분	사업자명	사업 내용
홈네트워크	삼성S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3년 4월 스마트홈 무선 솔루션 공개, 클라우드 기반 토털 홈 시큐리티 서비스 제공
가전 제조	삼성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 가전 기반 ‘스마트 홈넷’, 스마트폰 기반의 셋톱박스 ‘홈싱크’와 케이블 TV 셋톱박스인 ‘스마트 미디어 플레이어’ 출시
	LG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 웨어와 스마트 컨트롤 기능이 핵심인 ‘스마트홈’ 서비스 제공, 스마트 가전 콘트롤 ‘LG Thingq’ 개발
통신서비스	K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키봇(교육용 로봇), 스마트홈 폰 HD/스마트홈 패드 서비스 제공
	SKT/SK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네트워크 디홈, 보안서비스 홈CCTV 해피뷰, 다부 서비스 제공, 스마트 교육 로봇 아띠 출시
	LG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 Shoot & Play, 070 플레이어, 홈보이 서비스 제공
케이블	티브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TV 환경 구축을 통해 앱스토어, 클라우드, 스마트홈, N스크링 서비스 제공 계획
	현대HC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케이블TV, 인터넷, 전화를 하나의 원스톱 스마트 셋톱박스에서 제공
보안	에스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콤 홈즈, 세콤 홈 블랙박스 서비스 제공
	케이티텔레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시큐리티, 올레스마트 지킴이, 텔레캅 홈가드, 텔레캅 스마트 가드 서비스 제공
	ADT캡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 보안 솔루션 제공

다. 스마트홈 미들웨어 및 플랫폼 동향

- 스마트홈 관련 미들웨어 및 SW 플랫폼 기술은 1980년대 이래로 지속적으로 발전
 - 스마트홈 관련 미들웨어 기술은 1980년대 LonWorks, KNX 등을 시작으로 2000년대 Jini, HAVi, UPnP 등을 거쳐 최근에는 DLNA, SEP 등으로 발전
 - 현재에는 UPnP/DLNA, OSGi, IGRS 등의 미들웨어 표준 기술이 개발되고 있음

표 홈네트워크 미들웨어 비교					
시기	HAVi	UPnP/DLNA	Jini	OSGi	IGRS
제정 시기	1999	1999	1998	1999	2004
주도 단체	AV가전회사 (도시바)	PC 미디어 회사 (MS, Sony)	썬마이크로 시스템즈	통신게이트웨이 업체	중국 내 기업 (레노버)
특징	IEEE1394 기반 프로토콜	IP기반 인터넷 프로토콜	JVM, RMI 기반 프로토콜	Java 기반 오픈 서비스 게이트웨이	IP 기반 인터넷 프로토콜
관련 분야	AV 호환성	AV 호환성	소프트웨어	서비스 게이트웨이	AV 호환성
현재 상태	중지	UPnP2.0 진행	중지	OSGi v4.3	IGRS 2.0 진행

자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2013)

- 현재 미들웨어 분야에서는 3단계의 상호연동성 보장을 위한 기술과 홈자원 관리 프레임워크 기술 개발이 진행
 - 3단계 상호연동성 보장 기술: 기기 간 상호연동 기술, 이종 기술 간 상호연동 기술, 기기와 서비스 간 상호연동 기술로 구성
 - 홈 자원 관리 프레임워크 기술은 홈 관리의 대상을 디바이스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공간정보, 서비스, 콘텐츠, 사용자로 확장하고 복합적 자원 관계 기반의 장애처리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발

- 스마트홈 관련 SW 플랫폼 기술은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가 주도
 - (구글) 2010년 Android@Home 프레임워크 공개를 계기로 네트워크 접속이 가능한 모든 커넥티드 단말 영역으로 확장 시도
 - 안드로이드 폰 조작 조명기기, 미디어 공유 단말 Nexus Q를 발표, 크롬캐스트와 안드로이드TV를 기반으로 스마트홈 시장 공략
 - (애플) iTunes 유통 플랫폼을 중심으로 아이폰.아이패드.아이팟.애플 TV와 홈네트워크 융합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끊김없는 N-Screen 및 iCloud 서비스 제공
 - (마이크로소프트) 윈도 미디어 센터를 중심으로 PC-TV 등의 N-Screen 서비스를 연계
 - 홈엔터테인먼트를 하나로 통합한 Xbox One 출시, 스마트폰PC와 가정 내 모든 기기를 연동할 수 있는 HomeOS 개발 추진 중

라. 결론 및 시사점

- 스마트 홈 시장은 모바일 시장 이후 차세대 성장 시장으로 주목
 - 스마트 기기 급증과 기술의 발전, 이용자들의 수요가 맞물리면서 M2M/IoT 시장과 더불어 거대한 시장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
 - 단순 기기 제어나 보안을 넘어 에너지.헬스케어.스마트워크.엔터테인먼트.커머스 등 다양한 신규 서비스가 결합될 것으로 예상
 - 따라서 가전업체, 통신사업자, 보안업체, SW 플랫폼 업체, 홈네트워크 업체 등 수 많은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시장에 진입.영향력 확대를 시도
 - 스마트홈 시장을 차세대 수익 시장으로 상정하고, 관련 기술 개발 및 제품 출시를 통해 생태계 주도권 확보에 주력
- 다양한 기기·서비스·기술의 연동을 보장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 생태계 구축이 중요
 - 스마트홈 서비스 플랫폼이 구축되면 다른 디바이스 및 신규 서비스의 결합이 용이해지면서 확장성이 크게 증가
 - 특히 에너지 관리, 헬스케어, 스마트 가전 분야는 스마트홈 관련

- 서비스 중에서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
- 따라서 기기와 기술(통신·미들웨어)의 다양성, 그리고 다양한 산업과의 연동을 위해서는 표준화가 중요
 - 표준화의 경우 단일 표준으로는 다양성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복수 표준 기반의 상호연동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
 - 복수의 표준 간 상호 연동을 통한 상호운용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SW적인 상호연동 방법 개발이 필요
- 생태계를 주도할 대표 기업 발굴, 킬러 애플리케이션 개발, 클라우드·N-Screen, M2M/IoT 등 관련 기술과의 연계도 중요
- 모바일 시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생태계의 특성상 생태계를 대표하는 주도 기업의 존재와 역할이 중요
 - 경쟁사들과 차별화될 수 있는 킬러 애플리케이션의 개발이 필수적으로 요구
 - 현재 대부분의 스마트홈 시장 참여 기업의 서비스가 대동소이 하므로 고객 관점에서 차별화되고 고객 지향적인 서비스 개발이 요구됨
 - 스마트홈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기술(가정 내 정보 동기화, 동적 자원 할당, 정보 저장 등), M2M/IoT 기술(센서, 콘트롤)이 필수적임
 - 클라우드 및 M2M/IoT 기술 관련 표준 지원의 기술 연동이 기본
 - 따라서 개방형 플랫폼과 애플리케이션 유통채널 구축을 통해 개발 효율성 및 이용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